「미래연구」| 1권1호: 37-68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박성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미래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등장한 1960년대 이래 미래학이 진전시킨 것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도전해야 할 주제와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미래학계의 최초 저널이자 대표 저널인 Futures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1969-2016년)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미래학의 미래(future, futures studies), 미래학의 비전(vision), 미래학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미래학의 도전과제(challenge) 등을 키워드로 넣어 논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36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10가지의 진전과 10가지 도전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미래학의 미래, 비전, 패러다임의 변화, 도전

* 이 글을 읽고 논평을 해주신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심사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은 이 글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매우 유익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부연구위원 spark@stepi.re.kr

1. 서 론

세계 미래학계의 대표 저널 Futures는 제1호를 발행한지 2년이 지난 1971년 저널 구독자수 2000명 돌파를 기념하며 독자 분석을 한다. 조사 결과, 당시 Futures를 구독하던 사람들은 27%가 미국, 또 27%는 영국, 그리고 나머지 46%는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호주 출신 등으로 나타났다. 39%는 기업에서, 25%는 대학에서, 15%는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저널을 구독하고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나라와 조직에서 Futures를 구독하자 초창기 Futures 편집자들은 뜻밖의 선전(善戰)이라며 기뻐했다. 이들은 미래연구자는 미래라는 미지의 바다에서 길잡이(navigator)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선장과 선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승객들의 바람(desire, needs)을 고려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 미래학계의 탄생을 알린 Futures가 발간된 지도 50여년이 흘렀다. Futures가 등장한 1960년대는 세계 각국의 미래연구자들이 학술모임(World Future Society, 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을 만들었고, 대학에서 미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학회를 조직해 미래연구를 시작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미래연구가 어떤 진전을 일궈냈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지난 2016년1월 국내 미래연구의 재도약을 표방한 미래학회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여는 오늘, 꼭 필요한 작업이다.[2] 선행한 연구와 연구자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계승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학의 발전을 위해 어떤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야 할지 논의하기위해서다. 이 글은 세계 미래학계의 진전과 앞으로 도전과제를 제시하면서 미래학회가 국내외 미래학계는 물론 우리사회와 지구촌 공

1) 참조: "The Appeal of Futures Studies," ***Futures***, 3(2), 102.
2)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2016년 6월22일 제1회 미래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던 날 발표됐다.

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Futures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1969-2016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의 대상을 좁히기 위해 이 글의 주제로 선정한 미래학의 미래(future, futures studies), 미래학의 비전(vision), 미래학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미래학의 도전과제(challenge)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하기로 했다. 키워드 도출을 위해 앞서 언급한 주제의 영어 단어를 저널 Futures에 넣어 나온 논문의 요약본을 읽어보고 미래학의 진전과 도전과제를 다룬 논문들만을 추렸다. 이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이 논문들에서 history, emerging, discourse, development, application, evolution, building, reflection, rethinking, value, vision, paradigm, challenge, advancing 등의 키워드를 자주 사용함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키워드들을 차례로 Futures 논문 검색어로 넣어 나온 논문을 분석했다. 이렇듯 두 번의 키워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논문들 중 미래학의 미래를 다룬 논문들이 빠짐없이 분석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이 글의 논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36편의 논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 논문을 분석해 우리는 10가지의 진전과 10가지 도전과제를 정리했다. Futures에서 찾은 논문 중에 다른 저널의 논문이나 책을 인용한 내용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런 자료들도 분석했다.

물론 미래학의 진전과 도전과제를 딱히 10개씩으로 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석하는 연구자에 따라 7가지도 될 수 있고, 20가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선 지면의 한계와 가독성을 고려해 필자의 주관대로 10가지씩으로 정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10가지 도전과제를 도출할 때는 가급적 개인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을 통한 논문 수를 비교했다. 또 미래학의 방향성에 대해 미래연구자들과 많은 토론을

했으며 복수의 미래학자가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고 의견을 주었다. 미래학회 발표를 통해 참석자와 논평자의 의견도 반영했다.

2. 미래학의 10가지 진전

〈표 1〉 미래학의 10가지 진전

1) 예술에서 과학으로(from art to science)
2) 예측에서 대안실현으로(from forecasting to backcasting)
3) 개별 연구에서 미래연구의 제도화로(institutionalizing futures studies)
4) 변화 통제에서 변화 이해로(from controlling change to dancing with change)
5) 트렌드 연구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로(from trends to emerging issues)
6) 미래세대 연구의 중요성 부각(initiating future generations studies)
7) 미래연구 탈식민화(decolonizing futures)
8) 기술예측에서 기술영향 예측으로(from forecasting tech to forecasting its influence)
9) 변화의 윤리적 책임 강조(underlying ethical futures)
10)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 향상(enriching understanding about uncertainty)

1) 예술에서 과학으로(from art to science)

미래학은 탄생 초기부터 학문이냐 아니냐 논쟁을 벌여왔다. 지금도 예술(art) 대(對) 과학(science)의 논쟁 구도는 존재한다. 미래학을 예술(art)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도 그 이유와 유용성은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대한 이론 연구와 다양한 미래예측 방법론의 창안과 실행이 쌓이면서 미래학자들은 미래학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믿는다. 일례로, Blass(2003)는 미래학을 "신생 사회과학"으로 정의한다. 그 이유는 미래학이 1) 어떤 집단을 실증적 분석에 기초해 연구하며 2) 미래 이미지나 비전을 연구한다는 명확한 학문적 개념이 있고 3) 인간을 모델로 연구하

며 4)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이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론이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Niiniluoto(2001)은 미래학이 실증적 연구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와 미래상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디자인 과학(design science)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Kristof(2006)는 미래학이 혼돈과 불안정, 불확실의 시대에 기계적 결정론을 넘어 카오스 이론(chaos theory), 진화 모델링(evolutionary modeling), 인공지능 시뮬레이션(artificial intelligence simulation), 시나리오, 참여적 미래연구 등으로 나아가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2) 예측에서 대안실현으로(from forecasting to backcasting)

Robinson(1988)은 미래학계가 미래예측을 넘어 미래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래실현의 방법론으로 백캐스팅(backcasting)을 제안했다. 백캐스팅은 포캐스팅(forecasting)과 달리 당대에 통용되는 생각 또는 생각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다.[3] 이를 통해 대안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고 미래의 실현가능성과 실현됐을 때 사회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obinson, 1988). Dator(1986)는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론에 대해 변화에 수동적인 포캐스팅과 변화에 능동적인 디자이닝(designing) 등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미래학이 예측(forecasting)을 넘어 미래를 설계(designing)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Khakee & Dahlgren(1986)은 대안을 창조하고 실현하자면 변화를 일으키는 개입(intervention)의 전략을 개발하고 그

3) Robinson(1988)은 관습적 지혜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unlearning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설명했다. unlearning은 배우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기-진화적(heuristic) 배움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개인 연구에서 미래연구의 제도화로 (institutionalizing futures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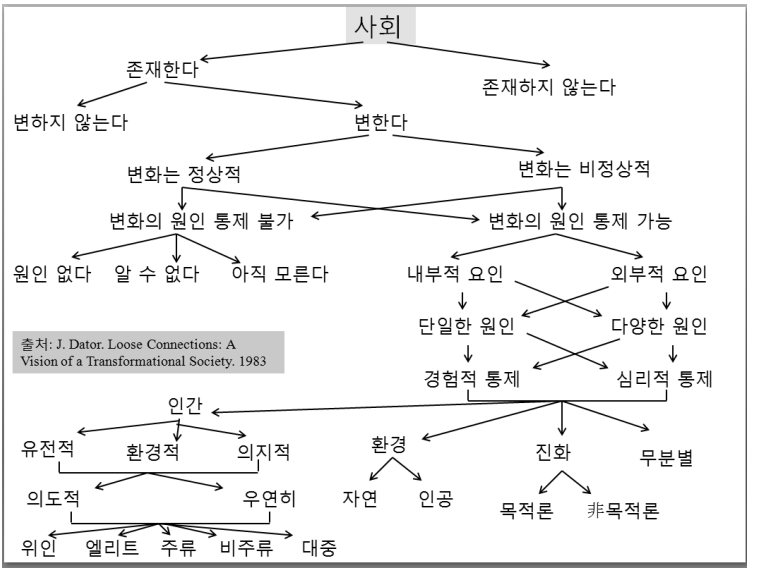
세계 미래학자들은 초창기부터 미래를 위한 다국적 전문가들의 협업 공간과 시스템을 창조해 미래연구의 전문화 노력을 경주했다(McHale & McHale, 1976). 여러 개인 연구자의 미래연구를 단순히 모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연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논의 기구나 저널, 학문 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미래연구를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유럽 학자들 중심의 세계미래학연맹(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학자들 중심의 세계미래사회(World Future Society)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설립됐다. 이런 기구의 설립과 더불어 미래연구 학술지 Futur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등도 탄생해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연구결과로 경쟁하면서 학문으로서 미래학을 발달시켰다. 1970년대 초반 미국 하와이 대학을 비롯해 서구 사회에서는 대학에 미래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도권 안에서 미래학을 발달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미래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예술가, 사회활동가,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직군들과 함께 미래연구를 수행했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학자들의 미래연구는 1970년대 후반,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등 정부의 미래연구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1990년대 핀란드 독일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미래연구를 수행했다(박성원, 2009a).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 전 미래연구를 수행했다는 것도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이들 정부가 미래연구를 제도화했다는 점이 더 중요한 진

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회에서도 미래를 연구했다. 1974년 국회 개혁위원회(the Bolling Committee)는 미래 준비법을 통과시켰고, 1975년부터 모든 위원회(예산위원회 제외)가 미래를 예측해 안건을 상정하도록 했다. 미래를 예상하지 않은 법안은 단견(短見)에 머물거나 미치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기 때문이었다(Bezold, 1999).

4) 변화 통제에서 변화 이해로 (from controlling change to dancing with change)

콩트의 사회학이 변화를 통제하고 그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데 관심을 둔다면 미래학은 변화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그림1 참조). 이는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해석되는데, 어떤 변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지 당장의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다. 이런 판단을 유보하면서 얻는 이익은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와 좀 더 높고 넓은 시각에서 변화의 방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Dator, 1983, 1986; Hines, 2002; Bishop & Hines, 2012). 미래학은 어떤 변화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때 일면적인 시각으로 변화의 모습을 특정하지 않고 다른 모습과 방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Blass(2003)는 미래학이 변화의 방향(direction), 변화의 결과(sequence), 변화의 조건(parameter)을 다룰 뿐 아니라 시스템의 이주(migration), 거대 변화의 출현과 소멸 등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Dator(1983)에서 나온 것을 필자가 번역함

〈그림 1〉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

5) 트렌드 연구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로 (from trends to emerging issues)

변화를 좀 더 깊고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미래학계는 트렌드 연구를 넘어 이머징 이슈 연구로 진입했다. 눈에 보이는 양상의 이면까지 분석하자는 시도이며,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려는 노력이 가해졌다. 이머징 이슈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사회제도, 종교적 신념, 정치적 이념, 바이러스나 질병, 천문학적 발견 등을 말한다. 이런 이슈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대체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누구에게도 이렇다 할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슈가 현실이 되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렌드는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다.

이머징 이슈는 트렌드 연구보다 미래연구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래학계에서 이머징 이슈는 약신호(weak signals), 변화의 씨앗(the seed of change), 와일드 카드(wild cards), 조기 경보(early warning), 초기 지표(early indicator), 미래의 사인(future sign) 등 다양한 표현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머징 이슈는 트렌드의 지속(continuity)을 중단시키고(discontinuity)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을 알린다. Dror(1993)는 불규칙한 중단(irregular discontinuity)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미래연구자들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deg(2002)은 패러다임적 변화를 포착하는 미래연구를 진화론적 미래연구(evolutionary futures studies)로 명명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에 커다란 분기점(bifurcation)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말한 분기점은 이머징 이슈가 발현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6) 미래세대 연구의 중요성 부각 (initiating future generations studies)

90년대 미래학계는 미래세대연구라는 담론을 제기한다. 미래연구는 미래세대연구이며 현재세대만을 위한 미래연구는 한쪽만의 이익을 대변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핵심 주제는 미래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다. Tough(1997)는 미래세대를 위한 헌장을 만들기도 했고, Tonn(1996)은 현(現)세대와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정부산하 미래위원회를 두고 집권정부의 정책이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자는 의견도 있다(Pohl, 1993).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외에 제4의 정부를 '미

래부'로 정하고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Dator, 1981). Inayatullah(1997)는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연구를 제안하면서 조상들(ancestors)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태어날 후손들(future generations)의 이익도 균형 있게 추구해야 세대간 형평성,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교수는 특별히 정부가 미래세대의 이익과 이들이 맞이할 환경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로 좀 더 민주적인 정부론을 제시한다(박성원, 2009b). 데이터에 따르면 좀 더 민주적인 정부란 현세대의 참여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참여까지 가정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다. 그는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류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7) 미래연구 탈식민화(decolonizing futures)

미래에 대한 탈식민 연구(decolonizing futures)는 지역기반 미래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Khakee & Dahlgren(1986)은 스웨덴의 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미래연구를 소개하면서 미래연구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지역의 기획가나 의사결정자들이 미래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지혜를 찾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한다. Masini(1989)는 미래 되찾기(reclaiming the future)라는 시각을 제안하면서 아프리카 주민들은 주요 선진국의 미래상을 수입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호미래상을 반영하는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흐름이 당시 Ilya Prigogine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과거와 현재의 단선적인 흐름이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내려가면서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열려있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시공간으로 이해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다. Sardar(1993)는 서구의 미래관이 제3세계에 여과 없이 투과돼 이들의 미래를 식민지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구세계가 당연시하는 미래의 이미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국의 사정에 맞게 서구의 미래상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 기술예측에서 기술영향예측으로 (from forecasting tech to forecasting its influence)

Masini(1989)는 미래학계가 80년대 들어서면서 기술예측과 더불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진 셈이다. Bishop & Hines(2012)는 기술은 사회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방향성이 있으며(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 인위적으로 발생하며(누군가 필요에 의해 발명된다는 의미), 물질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했듯 기술은 일부 지역이나 특정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사회를 재조직해 삶의 양식, 돈 버는 방법, 생존의 노하우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기술의 변화는 방향성이 있다(Bishop & Hines, 2012). 매번 다르다. 과거의 것이 다시 현재에 나타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기술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 스마트폰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 나타났던 시티폰이나 삐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컬러 TV를 경험한 사람은 흑백 TV를 보지 않는다. 이처럼 기술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숙명처럼 비춰진다. 기술의 변화는

동인이 존재한다. 누군가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쾌락과 편의를 위해 기술은 발명된다. 기술은 또한 물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 손에 쥐어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물질적 변화가 따라온다. 이런 이유로 어떤 기술이 앞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보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해마다 특정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예측하고 있다. Nandy(Ramos, 2005)는 미래학자들은 기술의 발달이 갖고 올 부정적인 영향과 한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사하고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9) 변화예측에서 변화의 책임 강조로(underlying ethical futures)

Dator(1986)는 이 세계를 완전한 인공세계(artificial world)로 간주하고, 인간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으킨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 예측에서 변화의 책임에 대한 강조로 넘어간 미래학계는 이런 흐름을 비판적 미래연구(critical futures studies)라는 새로운 연구의 경향으로 발전시킨다. Bell(2002)과 Slaughter(1996)는 비판적 미래연구를 모든 현존하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problematizing, questioning)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Bell(2002)은 이런 인식을 비판적 현실주의(critical realism)라고 부르면서 미래학 인식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4)]

---

4) 비판적 현실주의(critical realism)는 영국의 철학자 Roy Bhaskar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개념으로 경험적 현실주의(실증주의)나 초월적 이상주의(구성주의) 경향에 반대한다. 비판적 현실주의는 신념, 경험, 현재의 지식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사물이나 현상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달리 말해, "그러려니"하는 사물의 인식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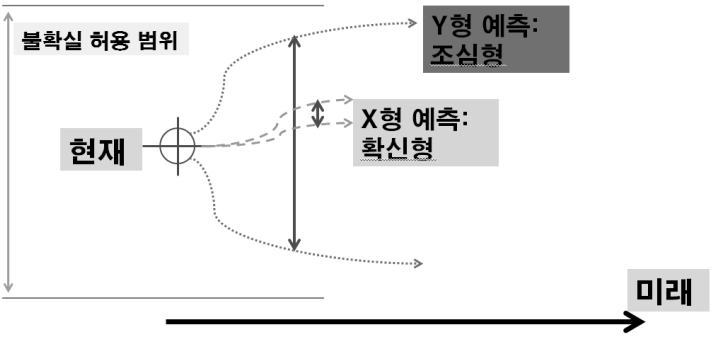
10)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 향상 (enriching understanding about uncertainty)

미래학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학문이다.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불확실성을 좁히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는 학문이다.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뜻은 미래학은 끊임없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변화의 다면적 통찰 노력, 트렌드보다 이머징이슈 발굴에 중점을 두는 연구 등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사례다. 이를 통해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변수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이들의 영향력을 연구할 수 있다.

네덜란드 과학위원회(WRR)는 불확실성의 종류를 인지적 불확실성(cognitive uncertainty)과 규범적 불확실성(normative uncertainty) 등 두 가지로 나눈다. 인지적 불확실성이란 사회의 역동성 증가, 미래에 대한 개인들의 서로 다른 예측, 트렌드의 지속적인 단절 등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규범적 불확실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미래상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 이해관계자들의 변화로 미래에 어떤 규범이 지배적일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2030년 자본주의가 세계에서 지배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작동할지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규범적 불확실성에 놓인 것이다.

Coffman(1997)은 불확실성의 범위가 좁은 사람들과 넓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그림2 참조), 미래의 방향이 결정됐을 경우엔 그 범위가 좁은 사람들(X형)이 득세하지만, 미래가 더욱 불확실할 때는 불확실성의 허용 범위가 넓은 사람들(Y형)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Tetlock(2012)은 불확실성의 범위가 넓은 사람들이 미래예측의 정확도

도 높다고 설명한다. 그는 미래에 대해 확신적인(confident)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중립적인(modest)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나눠 이들에게 수백 가지 미래에 대한 질문을 주고 답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예측이 얼마나 더 정확했는지 판별할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룹의 미래 예측이 더 정확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폭이나 깊이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런 차이가 예측의 정확도와 연결됐다는 것이다.



출처: Coffman(1997), 필자가 번역

〈그림 2〉 불확실성의 허용 범위에 따른 2가지 유형

3. 미래학의 10가지 도전과제

〈표 2〉 미래학의 10가지 도전과제

1) 근거기반 예측에서 전환 예측연구로(from evidence-based to transition)
2) 국가의 미래에서 인류의 미래로(from national foresight to foresight for humankind)
3) 공리주의를 넘어 해방주의로(from utilitarian to emancipatory)
4) 사회변화에서 감정변화 연구로(from social change to emotional change)
5) 서구 미래연구방법론에서 동아시아 미래연구방법론으로(from Western to East Asian)
6) 누구의 선호미래인가(whose preferable futures)
7) 여성 소수 약자의 미래연구 활성화(more reflecting voices of the minority)
8) 제한적 참여연구에서 포용적 참여연구로(from limited to inclusive foresight)
9) 이론과 방법론 향상(Improving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axioms)
10) 미래연구 경화증의 완화 노력(avoiding foresight scler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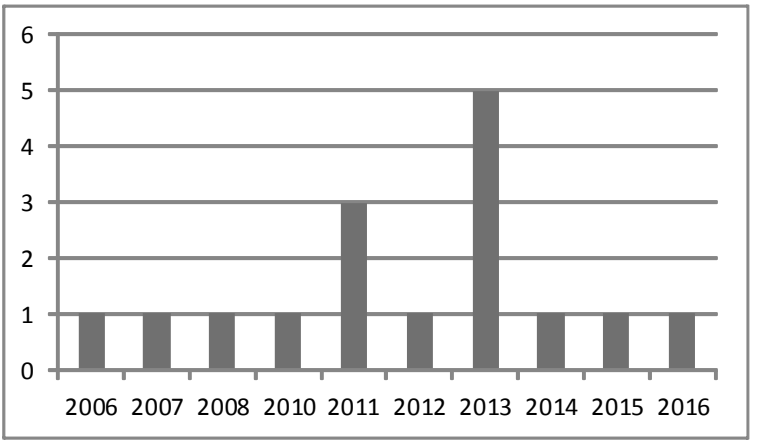
1) 근거기반 예측에서 전환 예측연구로 (from evidence-based to transition)

앞서 미래학의 10가지 성취에서 미래학계는 대안미래를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선호하는 미래를 현실에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측의 과학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많이 보이지만 예측의 결과를 사회적 비전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Slaughter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꼬집는다(Ramos, 2005:441). 그만큼 예측의 실현이 어려운 것이다.

박성원과 진설아(2016)는 미래학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 학계에서 미래 비전 실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전(vision)의 도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transition) 계획, 방법론으로서의 백캐스팅(backcasting)을 다룬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과학기술분야(SCIE), 사회과학분야(SSCI), 예술 및 인문과

학분야(A&HCI)의 인용색인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WOS)에서 검색 키워드 vision, transition, backcasting을 차례로 넣어본 결과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서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16개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 키워드 플러스(WOS가 부여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검색했으며, 검색범위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영어 논문(article)으로 제한했다. 논문 수도 생각보다 적었지만 2006년 이후에나 이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검색돼 최근에야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3 참조). 예를 들면 에너지 시스템 전환 연구들이 있다. 영국의 틴덜 기후변화연구소(The 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에서 수행한 틴덜 탈탄소 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하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60% 감소(1990년 대비)'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 비전은 에너지 시스템 통합 인프라,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행태, 제도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Mander et al., 2007, 2008). 2050년 예상되는 에너지 생산량 별로 나뉘어진 4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교통, 기술혁신, 대체에너지 산업 등을 포함한 분야별 에너지 수요/공급 차원의 종점(end-point)를 계량화한 후, 백캐스팅을 통해 이에 영향을 미칠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적 외부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변화양상과 각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 개요를 도출하였다.

사실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미래학계가 백캐스팅을 소개한 것이 1980년대이고(예컨대 Robinson, 1988) 그 이후로 꾸준히 이 방법론에 대한 개발이 있었으나 미래학계라는 범위를 넘어서면 사례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미래학계는 미래비전 실현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비전 전환 연구 논문의 년도 별 발행 건수

2) 국가 미래에서 인류 미래연구로 (from national foresight to foresight for humankind)

정부의 미래연구가 활발하고 국가단위의 미래전략이 중요해진 만큼 이런 연구주제로 수행된 많은 연구가 있다. Futures(1969-2016년) 논문에서 국가적(national)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3,364건의 논문이 검색된다. 반면 인류(humankind)의 미래라는 주제로 검색하면 414건의 논문이 나온다. 국가적 미래연구(national foresight)와 비교해 10% 수준인 셈이다. 인도의 저명한 정치사회학자이자 미래학자인 Ashis Nandy (Ramos, 2005)는 미래학이 인류의 운명이나 생태계 또는 변화하는 지식의 유형(the changing contour of knowledge) 등 거시적인 변화, 지구적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단순히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모색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기존의 학문이 답습한 문제를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경고한다. 미래연구는 경제성장(growth)을 넘어

정신적 성장이나 행복(wellbeing)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미시적 환경에도 미래연구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표 3〉 national, growth, humankind, wellbeing 관련 Futures 논문 수

키워드	Futures 논문 수(1968-2016년)
national	3,364
growth	2,972
humankind	414
wellbeing	586

3) 공리주의를 넘어 해방주의로(from utilitarian to emancipatory)

Ahlqvist & Rhisiart(2015)는 미래학이 기업과 정부를 위해 공리주의적(utilitarian) 관점의 미래연구를 제공하는데 비판한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미래연구가 많은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세계관의 예측, 대안적 사회경제시스템(예컨대 de-growth)의 제안 등에 대해 연구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학계는 해방적(emancipatory) 관점, 비판적(critical) 시각을 반영한 미래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런 관점을 반영한 미래연구의 사례는 표4를 참조). 예컨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1970년대), 대안미래나 다중원인분석법(Causal Layered Analysis)(1980년대), 젠더나 윤리연구(1990년대) 등을 들 수 있다. Galtung의 평화학이나 Wallerstein의 세계체제이론(world systems) 등도 해방적 미래연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Nandy는 미래학이 미래학답게 되려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하고 불찬성하며 탈중심적이고 상상력을 겸비한, 대담한 실험적 사고들을 더욱 풍부하게, 극대화시켜야"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5] 여기서 탈중심적 사고란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복

수(複數)의 대안을 내놓는 방법론, 틀, 시각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표 4〉 해방적, 비판적 미래연구
(The emancipatory or critical dimensions in futures studies)

	Global systemic dimension	Critical methodological dimension	Social theoretical dimension
Emergence	1970s	1980s(still emerging)	1990s(still emerging)
Core content	• Critical analyses of the Earth as an interlinked and limited global system	• Critical aspects in the internal methodological development of futures studies and foresight	• Futures studies and foresight in dialogue with multi-disciplinary (critical) social theory
Key trajectories	• Earth as a global environmental system(Club of Rome; Limits of Growth; Brundtland Commission) • Green movement • Peace research lineage • World systems	• Alternative futures • Integral futures • Causal Layered Analysis • Critical future studies and alternative methodological approaches	• Dialectical approach • Cultural studies • Gender aspects • Political economy • Ethics

출처: (Ahlqvist & Rhisiart, 2015:96)

〈표 5〉 development, emancipation, de-growth 관련 Futures 논문 수

키워드	Futures 논문 수(1968-2016)
development	4,241
emancipation	123
de-growth	39

5) Nandy의 다음 말을 저자가 번역: "To maximize and enrich dissent, decentralized, imaginative, risky, experimental modes of thinking are absolutely vital." (Ramos, 2005:437)

4) 사회변화에서 감정변화 연구로 (from social change to emotional change)

Lauer(1974)는 개인들은 변화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경우, 또 변화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변화를 불안한 것, 불편한 것, 불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는 개인을 사회와 괴리시킬 수 있으며, 변화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박탈감 등이 심해질 수 있다. 사회변화를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에 대한 개인의 감정 연구, 심리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연령, 성별, 거주 지역, 학력, 소득 등에 따라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른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Bussey(2002)는 미래학의 변화연구는 정신적 변화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컨대 희망의 문해력(literacies of hope)을 개발하면 개인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미지로 놔두지 않고 실제 실현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Hines(2002)는 변화에 저항하는 개인들을 연구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도 미래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 6〉 social, emotional 관련 Futures 논문 수

키워드	Futures 논문 수(1968-2016)
social	4,236
emotional	462

5) 서구 미래연구방법론에서 동아시아 미래연구방법론으로 (from Western to East Asian)

40년 전 McHale & McHale(1976)이 제시한 미래 방법론은 지금에도 여전히 활용되는 것들이다. 당시 활용했던 델파이(delphi),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게이밍(gaming), 교차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나리오 빌딩(scenario building) 등은 지금도 사용된다(McHale & McHale, 1976). 밀레니엄 프로젝트(The Millenium Project)에서 해마다 갱신하는 미래연구방법론(Futures Research Methods)은 현재 40여개의 방법적 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아의 시각과 철학, 문화를 반영한 방법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키스탄 출신의 Inayatullah가 개발한 다중원인분석법(Causal Layered Analysis)를 제외하면 아시아 출신의 미래학자가 내놓은 방법론은 없다. 그리고 이 분석법은 푸코의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를 바탕으로 창조된 것이어서 아시아의 철학이나 문화적 전통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동아시아는 풍부한 문화와 철학적 전통을 갖고 있다. 이것들을 반영한 미래학 방법론이 나올 때도 되었다.

사실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늘 언급되는 변화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변화의 지점을 포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영어식 표현에서 변화(change)의 뜻은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become different in essence losing one's or its original nature) 등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질과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데, 애초에 모든 사물의 본질과 본성이 마치 원형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동아시아에서 변화는 바꿀 역(易)으로 해석하는데, 주역 계사전에 역이란 무엇인지 나타나있다: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 박정근(2004)에 따르면 생생(生生)은 역(易)인데 멈춤 없이 드러나는 것, 새로

워지는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임채우(2006)는 역(易)을 "끊임없이 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유대-기독교주의(Judeo-christian)나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비춰보면 변화란 어떤 변하지 않는 원형에 비춰 파생된, 달라진 모습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애초에 원형은 없으며 인간은 오늘 자신이 마주하는 변화, 변화하는 상황에 자신을 맞춰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인류에게 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고 간주한다(Park, 2013). 동아시아인들의 삶에 중요한 지표인 도(道, dao)는 과정-중심적(process-oriented), 모든 것이 연결됐다고 보는 시각(holistic relationships), 각각의 특별함이 인정되고 허용되면서 이룰 수 있는 조화(harmony with particularism), 상관관계(correlativeness), 그리고 언제든 확정할 수 없는 새로움(novelty that is not predetermined) 등의 가치와 세계관이 내포돼 있다(Ames & Rosement, 1998; Ames & Hall, 2003; Park, 2013).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적 세계관이 반영된 미래연구 방법론이 개발된다면 세계 미래학 발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6) 누구의 선호미래인가(whose preferable futures)

미래학은 가능미래와 더불어 선호미래의 도출을 중요한 연구로 삼는다. 그러나 선호미래에서 종종 생략되는 것은 누구의 선호미래이며, 그것의 타당성 및 대표성을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다. 또한 그 선호미래가 바람직한 것이냐는 논의도 필요하다. 특정 그룹의 선호는 다른 그룹에겐 비선호일 수 있다. 한 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의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한 시대가 추구해봄직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간다. Bell(2002)은 미래학이 발전하

려면 꼭 갖춰야 할 것 중 선호미래의 도출 과정과 그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자면 선호미래의 정의, 도출 과정, 구조화된 설문지, 설문 대상의 대표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 누구라도 선호미래를 조사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Bell이 지적한 대로 선호미래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표 7〉 possible, preferable 관련 Futures 논문 수

키워드	Futures 논문 수(1968-2016년)
possible	3,657
preferable	301

7) 여성 소수 약자의 미래연구 활성화 (more reflecting voices of the minority)

Gunnarsson-Ostling(2011)은 저널 Futures에 게재된 논문 중 페미니즘과 젠더 연구를 다룬 78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의 미래학은 서구와 남성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상 저변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약하며, 미래에 대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남성이나 기술적 시각에서 바라본 미래연구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미래학은 여성을 종종 미래에 수동적인 희생자로 다루고 있음도 꼬집었다. 미래연구는 앞으로 여성뿐 아니라 소수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표 8〉 technology, minority, feminism 관련 Futures 논문 수

키워드	Futures 논문 수(1968-2016년)
technology	3,954
minority	600
feminism	98

8) 제한적 참여연구에서 포용적 참여연구로 (from limited to inclusive foresight)

Loveridge & Street(2005)는 전문가 중심의 미래연구를 비판하면서 좀 더 많은 일반 개인들이 미래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미래연구(inclusive foresight)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사실 대중을 미래연구에 참여시키자는 아이디어는 오래됐다. Toffler(1978)는 한 사회가 미래 쇼크를 받지 않으려면 사회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미래연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며, 예측의 민주주의(anticipatory democracy)를 시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어 내려면 대중이 필요한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offler는 한 사회의 바람직한 비전 형성을 위한 사회적 협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을 미래연구에 참여시키는 사례들은 독일의 푸투어(FUTUR) 프로그램이나 영국의 팬(FAN: Future Analysis Network) 클럽 등을 통해 범 정부차원으로 실시된 적이 있다(Hafner & Cuhls, 2004;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 2009). 그러나 여전히 미래연구는 전문가 중심이다. 미래연구에 누구를 참여시켜야 적절한지, 이들의 역할 범위나 협업의 방법, 효과적인 과정 설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도 미약하다.

〈표 9〉 expert, layperson 관련 Futures 논문 수

키워드	Futures 논문 수(1968-2016년)
expert	1,695
layperson	30

9) 이론과 방법론 향상 (Improving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axioms)

미래학이 발전하려면 명쾌하고(explicit) 탄탄한(rigorous) 기준을 갖고 질 높은 미래연구를 지속해야 한다(Bell, 2002). 미래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학계의 단골 메뉴다. 다른 분과 학문도 마찬가지일 듯싶지만, 미래학이 아직은 신생학문으로 대접받고 있어 이론과 방법론이 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Hines(2002)는 미래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이 실제 조직이나 기업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현재의 미래연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주장했다. Dror(1993)는 미래연구가 규범적 정책연구의 틀 안에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다듬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한국 미래학계가 힘써야 할 것은 공동체 기반(community-based)의 연구방법론 개발이다. 예컨대, 시민들에게 개방된 미래학 프로그램의 개발뿐 아니라, 미래학 프로그램 안에 인턴십(internship) 과정을 넣어 학생들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 미래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이나 공동체에 직접 들어가 미래연구를 하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다시 학문의 세계로 가져와 정교한 이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지 않으면 애매한 미래연구자(elusive futurist) 즉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방법론만 남발하는 가짜 미래연구자가 될 수 있다(Marien, 1977).

10) 미래연구 경화증의 완화 노력(avoiding foresight sclerosis)

앞서 제기한 9번 항목과 대치되는 듯 보이지만 미래학은 한편으로 너무 과학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왔다. 창의적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대안을 도출하자면 숫자와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의 사건이나 이슈를 연구할 때 부딪히는 걸림돌은 지나친 인과주의나 실증주의적 사고다. 미래의 일에 대해 확실한 인과론적 고리를 찾기 힘들며, 미래의 사건이 확실히 현실화 된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2006년 영국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미래를 연구할 때는 데이터와 통계, 합리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며, 상상력 훈련을 일상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영국특별위원회, 2007)[6]. Masini(1989)는 더 나아가 미래를 창조의 공간으로 보고 미래연구자들은 미학의 확산(prevalence of aesthetics) 같은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amos(2005)는 Ashis Nandy와 미래학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면서 Nandy가 개별적인 데이터의 확보와 추이 분석은 미래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지는 몰라도 사회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혜안은 줄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한다. 모든 것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관련을 맺고 있어 몇 개의 추세를 예측한다고 해서 사회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는 없다.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는 핵심단어다. 미래학은 다양한 변수를 거론하고 변수들간의 복잡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이 세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

6) 영국특별위원회 자료는 다음에서 요약 발췌: House of Commons Adminstration Select Committee. 2007. ***Governing the Future***, Second Report of Session 2006-07, Volume 2.

4. 결론

미래학계 대표 저널 Futures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서 미래학계가 그동안 진전시킨 것과 앞으로 도전해야 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항목을 조정하고 내용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보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가지 진전과 도전과제를 찾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글은 미래학계의 네 가지 진전을 발견했다.

첫째, 세계 미래학계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창조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확실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확실해서 자유가 생긴다는 사고의 전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미래를 자유의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또 미래학계는 미래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미래가 다가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둘째, 미래학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돼 있다는 전일적 시각을 발전시켜왔다. 장밋빛 미래 비전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과거는 우리가 변해온 궤적과 이유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였는지'를 파악하고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를 회고하면서 욕망과 열망을 이해한다. 이 과정이 생략돼 있으면 어떤 변화에 수용적이고, 저항적인지 분석하기 힘들다. 과거의 우리가 바랐던 모습이 현재의 우리가 됐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미래의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그 동기와 에너지를 과거와 현재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

야 실현가능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비록 잘 들리지는 않지만 미래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현실세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미래의 목소리는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미래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이머징 이슈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신하고 있는, 그러나 작고 약해서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는 현재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래세대론은 이런 점에서 미래학뿐 아니라 다른 학계와 지성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미래학계는 미래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이론과 방법론의 개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왜 미래를 연구하는지, 왜 미래를 연구해야만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유용한지 밝히는 노력을 해왔다. 선배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현재를 참을 수 있었고, 과거는 더욱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Masini, 1989:152). 이들에게서 미래연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였으며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었다.

참고문헌

박성원. 2009a. "주요국의 미래연구 기법." 황혜신, 류현숙, 박경돈, 서용석, 이재호, 최호진 편.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1권』. 법문사.

박성원. 2009b. "진정한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학." 『신동아』 9월호

박성원, 진설아. 2016. "한국인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ot published yet.

박정근. 2004. 『생, 중국적 사유의 원형』. 지식백과인문과학. 살림지식총서.

임채우. 2006. 『주역 왕필주』. 도서출판 길.

Ahlqvist, Toni. Rhisiart, Martin. 2015. "Emerging pathways for critical futures research: Changing contexts and impacts of social theory." *Futures*, 71, 91-104

Ames, Roger T., Rosemont Jr. Henry. 1998. *The Analects of Confucius: A Philosophical Transl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Ames, Roger T., Hall, David. 2003. *Daodejing "Making This Life Significant" A Philosophical Transl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Bell, Wendell. 2002. "Advancing futures studies: a reply to Michael Marien." *Futures*, 34, 435-447

Bezold, Clem. 1999. "Governmental Foresight and Future Generations." Kim T., Dator J. Eds. *Co-Creating a Public Philosophy for Future Generations*, Praeger. pp. 89-97

Bishop, Peter., Hines, Andy. 2012. *Teaching about the future*. Palgrave Macmillan

Blass, Eddie. 2003. "Researching the future: method or madness?" *Futures*, 35, 1041-1054

Bussey, Marcus. 2002. "From change to progress: critical spirituality and the futures of futures studies." *Futures*, 34, 303-315

Coffman, Bryan S. 1997. Weak Signal Research: Part III Sampling, Uncertainty and Phase Shifts in Weak Signal Evolution. Available at www.mgtaylor.com/mgtaylor/jotm/winter97/wsrsampl.htm

Dator, Jim. 1981. "Responding to the future." Dorothy Douthit, ed. *Planning the Good Life for Hawaii.* Hawaii Committee for the Humanities

Dator, Jim. 1983. "Loose connection: a vision of a transformational society." E. Masini, ed., in: Visions of Desirable Societies, , Pergamon Press, pp. 25-45

Dator, Jim. 1986. "The Futures of Futures Studies – the View from Hawaii." *Futures*, June, 440-445

Dror, Yehezkel. 1993. "Futures Studies Defects." *Futures*, April, 351-352

Editor's Comment. 1971. "The Appeal of Futures Studies." *Futures*, June, 102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 2009. FAN CLUB NEWSLETTER. www.foresight.gov.uk

Gunnarsson-Ostling, U. 2011. "Gender in futures: a study of gender and feminist papers published in Futures, 1969-2009." *Futures*, 43, 1029-1039

Harfner, S., and Cuhls, K. 2004. "The German Research Dialogue – The Second Phase." EU-US Seminar: New Technology Foresight, Forecasting & Assessment Methods-Seville 13-14 May.

Hideg, Eva. 2002. "Implications of two new paradigms for futures studies." *Futures*, 34, 283-294

Hines, Andy. 2002. "A practitioner's view of the future of futures studies." *Futures*, 34, 337-347

Inayatullah, Sohail. 1997. "Future Generations Thinking." *Futures*, 29(8), 701-706

Khakee, A., and Dahlgren, L. 1986. "Values in Futures Studies and Long-term Planning: Two Swedish Case Studies." *Futures*, Feb, 52-67

Kristof, Tamas. 2006. "Is it possible to make scientific forecasts in social sciences?" *Futures*, 38, 561-574

Lauer, Robert H. 1974. "Rate of Change and Stress: A Test of the Future Shock Thesis." *Social Forces*, 52, 510-516

Loveridge, D., and Street, P. 2005. "Inclusive foresight." foresight, 7(3), 31-47

Mander, S., Bows, A., Anderson, K., Shackley, S., Agnolucci, P., & Ekins, P. 2007. "Uncertainty and the Tyndall decarbonisation scenario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7(1), 25-36.

Mander, S. L., Bows, A., Anderson, K. L., Shackley, S., Agnolucci, P., & Ekins, P. 2008. "The Tyndall decarbonisation scenarios–part I: development of a backcasting methodology with stakeholder participation." *Energy Policy*, 36(10), 3754-3763.

Marien, Michael. 1977. "Who's Who in Futures Studies: An Assessment of the Three Major

Directories." Futures, December, 526-537

Masini, Elenora B. 1989. "The Future of Futures Studies: A European View." *Futures*, April, 152-160

McHale J., and McHale M. C. 1976. "An Assessment of Futures Studies Worldwide." *Futures*, April, 135-145

Niiniluoto, Ilkka. 2001. "Futures studies: science or art?" *Futures*, 33, 371-377

Park. Seongwon. 2013.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ast Asian Futures Studies: Reinterpreting Dator through Zhuangzi." *Journal of Futures Studies*, 18(2), 13-32

Pohl, Frederik. 1993. "The Uses of the Future." *Futurist*, 27(2), 9-12

Ramos, Jose M. 2005. "Memories and methods: conversations with Ashis Nandy, Ziauddin Sardar and Richard Slaughter." *Futures*, 37, 433-444

Robinson, John. 1988. "Unlearning and Bacasting: Rethinking some of questions we ask about the futur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3, 325-338

Sardar, Zia. 1993. "Colonizing the future: the other dimension of futures studies." *Futures*, 25(2), 179-190

Slaughter Rick. 1996. "From individual to social capacity." *Futures*, 28(8), 751-762

Tetlock, P. 2012. "How To Win At Forecasting" [On-line]. *Edge*. Retrieve from https://www.edge.org/conversation/how-to-win-at-forecasting

Toffler, Alvin. 1978. "Introduction on Future-Conscious Politics." Bezold, C. ed. *Anticipatory democracy: People in the Politics of the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pp. xi-xxii.

Tonn, Bruce. 1996. "A design for future-oriented government." *Futures*, 28, 413-431

Tough, Allen. 1997. "What Future Generations Might Say to Us." *Futures*, 29(8), 707-713

【 ABSTRACT 】

Ten Challenges for the Future of Futures Studies

Seongwon Park*

The article investigates what futures studies has achieved since the field of futures studies launched in the 1960s and explores what futures studies has to pursue in order to develop its academic field. For conducting this project, we reviewed the journal Futures from 1968 to 2016 and found 10 achievements of futures studies: from art to science; from forecasting to backcasting; institutionalizing futures studies; from controlling change to dancing with change; from trends to emerging issues; initiating future generations studies; decolonizing futures; from forecasting tech to forecasting its influence; underlying ethical futures; and, enriching understanding about uncertainty. Furthermore, we found 10 challenges that futures studies should tackle for a better future: from evidence-based to transition; from national foresight to foresight for humankind; from utilitarian to emancipatory; from social change to emotional change; from Western to East Asian; whose preferable futures; more reflecting voices of the minority; from limited to inclusive foresight; Improving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axioms; and, avoiding foresight sclerosis.

Key words: future of futures studies, vision, paradigm shift, challenge

* A fellow researcher a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